

장수가야의 실체 다시 확인하다

동촌리 가야고분 현장공개

호남지방 가야고분 첫 발굴조사와 함께 장수읍 동촌리 가야고분 현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장수군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3일 장수읍 동촌리 가야고분에서 호남지방 가야고분 첫 발굴조사 성과 발표와 함께 현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지난 5월부터 국비 3억이 투입된 동촌리 고분 전수조사는 명명된 25-1호분과 28호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가야토기와 동근고리칼, 말발걸이, 재갈, 화살통, 은귀걸이, 금귀걸이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말에 사용된 재갈은 소가야계통에서 1점밖에 출토되지 않은 중요 유물로 평가되며 소가야와의 교류사에 있어 중요자료로 평가됐다.

화살통은 기존 다른 유적에서 확인된 화



살통 꾸미개인 성시구뿐만 아니라 유기물(가죽 혹은 목재로 추정)로 만들어진 본체(화살보관함)가 함께 출토돼 고대 화살통 연구의 중요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촌리 고분군은 일원에 80여개소의 고분이 자리하며 그동안 3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다

양한 가야토기와 철기류가 확인됐다.

고분조성 방식은 봉분 조성 후 석곽묘의 자리를 되파기 하는 방식으로 밝혀져 지역적 특색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중 28호분 주석곽은 길이 5.4미터 넓이 1미터 높이 1.8미터의 대형석곽묘로, 내부에 놓인 목곽의 크기도 3.2미터로 대형으로 추정된다.

이날 현장공개에서는 ▲동촌리고분 발굴조사의 다양한 축조방법 활용 ▲무덤내부내 희귀한 유물 확인 등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진행돼 그 동안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가야계 무덤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장수가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자문위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과장인 교수는 "장수가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 유적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돼 매우 기쁘다"며 "장수지역 가야세력의 위상을 예상했을 때 국가사적 및 세계유산 등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예술계의 새 바람 일으킬 '부안예술제' 내일 개막

시상식 · 트로트가요제 · 국악제 · 전시회 · 수공예체험 등 다채

한 해 동안 부안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다듬어 내놓은 부안예술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부안의 가을을 수놓는다.

올해로 제17회째를 맞이하는 부안예술제는 '행복한 부안 예술로 바꾸자'를 기본 취지로 (공연, 전시, 체험, 발간 등) 대도시 예술제를 능가하는 의욕적이고 역량이 있는 순수 예술인들의 진치로써 전북예술계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인의 자부심 확대

를 위해 공이 큰 지역 예술인에게 주는 부안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자로는 전순자(국악협회), 조명환(문인협회), 노현정(미술협회), 박철현(사진작가협회), 이희권(연예예술인협회)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 예술제 기간 동안 제4회 부안마실트 트로트가요제, 제23회 부안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국악공연으로 부안국악제, 제24회 한국미술협회부안지부 회원전, 제8회 한국사진작가협회부안지부 회원전, 한국문인협회부안지부

회원 시화전, 제2회 청소년 예술제 우수작품 전시회, 부안문예창작반의 시화전시회 등이 잇따라 열린다.

또 캘리그라피, 수공예체험, 도자기그림그리기,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부안예술회관에서는 예술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부안예술제 식전공연으로 완주 은소리 국악공연을 선보인다.

한국예총 부안지회 김종문 지회장은 "그간 갈고닦은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온 군민들이 소름하며 화합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교대 실과교육과 작품전시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 실과교육과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미술실과관 로비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Go together! 일상에서 전통과 현대의 생활·기술을 만나다. 함께하다.'를 주제로 침선, 천연염색, 한지, 로봇, 3D프린터, 드론, 공기청정기 등 실과 교과 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을 전시했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3학년생을 중심으로 1,2학년이 공동 참여해 전시회 기획, 제작, 전시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며 친목과 단합의 기회를 가졌고, 실과 교과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기회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익두 교수, 창암 이삼만 연구서 발간

14년 조사 끝에 완성... 평전식 흥미롭게 구성

전북대학교 김익두 교수(인문대 국어국문학과)가 창암 이삼만 선생에 관한 연구서 '조선 명필 창암 이삼만 : 민족서도의 길을 열다 (문예원)'를 14년 동안의 연구 끝에 내놓았다.

창암 이삼만 선생은 조선 후기인 1770년 정읍에서 출생하여 전주 옥류동(현 한벽루 근처)에서 명필의 이름을 얻어 활동하다가, 1847년 그의 말년 은거지인 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공동 마을에서 78세로 생애를 마친 조선 후기 최고의 서민 명필이었다. 특히 창암은 그보다 16세 연하였던 추사 김정희와의 묘한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그간 김 교수는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10여 년 이상의 조사 정리와 연구를 거쳐 이 책을 완성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설왕설래 했던 창암의 출생설에 관해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그동안의 '정읍출생설'과 '전주출생설'을 '정읍출생설'로 확정하는 심도 있고 다양한 논증을 하고 있다.

책의 전체 구성은 창암의 출생에서부터 말년 서거와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창암의 일생을 평전식으로 흥미롭게 구성하고 있다. 말미에는 작품감상 장을 두어, 창암의 주요 작품들을 컬러로 실고, 그



각 작품들에 관한 김교수의 감상과 평가를 기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저서에 관해 "서예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 최대의 서민 명필인 창암 선생이 우리 서예사에서 아직도 그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력이나마 창암 연구의 기본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공연장에서 즐기는 한편의 영화' 로 힐링하세요

내일 장수 한누리전당서 무료 공연

'브라스넷 빅밴드와 함께하는 Feeling Good with BMK' 공연이 내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2018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장수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브라스넷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공연은 '공연장에서 즐기는 한편의 영화'를 컨셉으로 1부에서는 영화 '라라랜드'의 주요 장면을 브라스넷 빅밴드 사운드와 뮤지컬 앙상블팀의 공연으로 꾸려진다.

2부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소울 보컬리스트 BMK가 '꽃피는 봄이 오면', '물들어' 등의 노래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내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린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